



5인조 퓨전국악밴드 'wHOOL(훅)'이 던지는 당당한 제안 “국악에 대한 편견을 버려!”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젊은 뮤지션의 해방구 홍대 앞.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넘쳐난다.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몇 해 전 이곳에 독특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밴드가 동지를 틀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5인조 밴드 'wHOOL(훅)'이 그들이다. 일렉트로닉과 펑키가 주류인 이곳에서 이들은 장구·피리·북 등을 전자악기와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음악 '수제천'을 테크노로, '비나리'를 펑크와 랩으로 탈바꿈시켜 연주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퓨전 국악 밴드'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훅'만의 음악, '훅'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퓨전으로 불리는 게 억울한 모양이다. 그만큼 이들의 음악은 새로우면서도 개성이 있다. 이들이 연주하는 멜로디 속에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흐르고 신명과 흥이 녹아 있다. 즉, 이들은 이곳에서 'KOREAN POP'이라는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wHOOL'은 실내악단 '슬기둥'과 타악그룹 '공명' 등에서 활약한 최운상(장구·북·뽕과리, 37) 대표를 주축으로 '모든 것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을 담아 지난 2003년에 결성했다. 최 대표는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음악을 전공했다. 그는 “음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버린 뒤 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훅'을 지켜갈 것”이라며 웃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 입대 등으로 멤버들의 면면이 조금씩 변화를 겪었지만, 음악적 색깔만은 변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최 대표의 이러한 남다른 각오 때문이다. 지금은 김현수(베이스기타, 28), 박동일(피아노/신디사이저·작곡, 27), 최가람(기타, 24), 류하림(드럼, 28)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베이스가 연주자 없다는 얘기를 실험연극 뒤풀이 때 듣고”(김현수), “군 제대 후 동네 피아노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천을 받아”(박동일), “박동일 군의 제안으로”(류하림), “하림 형의 제안으로”(최가람) 등 'wHOOL'에 결합한 시점과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국악과 전자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 이들에겐 열정과 패기가 넘친다. 음악적 색깔이 달라 티격태격하는 일조차 없을 정도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장고, 북, 뽕과리 등의 전통악기와 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등 서양악기가 혼재된 'wHOOL'의 음악은 문화, 세대, 시대에서 오는 경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즐기고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 · 최가람



드럼 · 류하림



리더(보컬) · 최윤상



건반 · 박동일



베이스기타 · 김현수

이들의 음악을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얼씨구’ ‘그렇지’ ‘좋아’ 같은 추임새가 튀어나오고, 음악에 심취한 나머지 어느 샌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최 대표는 “멀티컬처그룹, 올라운더(all-round), 월드뮤직 등 장르를 규정짓는 말이 많은데 전통과 현대, 국악과 퓨전 등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wHOOL만의 독특한 음악을 앞으로도 선보일 생각”이라며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홀’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밝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없는 살림이지만, 3년 전 홍대 피카소거리에 ‘여기에서 만개하자’는 뜻을 가진 블러섬랜드라는 연습실 겸 공연장을 마련했다. 30평 남짓. 결코 크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밴드들이 연습실 하나 없이 지내는 것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이들은 직접 못을 박고, 페인트를 칠하며 이 연습실을 꾸몄다.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 대표의 말을 빌자면,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음악을 알리고 싶었”단다.

이들은 블러섬랜드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일명 ‘핑크 블러섬 파티’. 우리말로 하면 ‘진달래꽃 축제’쯤 될 듯인데, 이들의 공연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공연장은 매 공연마다 관객들로 꽉 찬다. 공연은 주로 마지막 주 금, 토요일에 열린다. 관객들은 신발을 벗은 채 방석에 앉아 최소한의 입장료만 내고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놓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놀면서 즐기지만 하면 된다.

이 파티의 내용과 형식은 매번 바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파격적이라는 것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식발 여성 및 전통한복 50% 할인’ 같은 건 약한 축에 속한다. 평소 버리고 싶었던 물건을 가져와 남들에게 나눠주는 ‘짐 버리기’ 프로젝트, 팬과 지인들에게 매일 전자우편으로 안부를 전하는 아침인사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wHOOL’은 앞으로 이 ‘핑크블러섬 파티’를 굳이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과 무용, 마임, 힙합 댄스 등 다양한 문화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새로운 한국 문화의 싹을 틔우는 공연’으로 꾸준히 지속할 생각이다. 또한 공연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블러섬랜드’를 다양한 뮤지션과 문화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만개하는 공간, 지속적으로 한국문화가 발전해나가는 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도 하고 있다.

국내보다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wHOOL’의 음악

전통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늘 그렇듯 ‘wHOOL’의 음악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받았다. 창단 이후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를 비롯 미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 등지에서 공연을 펼쳤다. 올해도 필라델피아 뮤지엄 아트 페스티벌, 프랑스 미모스 페스티벌,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등 해외공연 일정이 여럿 잡혀 있다.



여전히 ‘wHOOL’의 음악을 모르겠다고? 이쯤에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타이틀곡 중의 하나인 ‘학익진’을 떠올려보자. 웬지 낯이 익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 곡과 ‘wHOOL’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악’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장르이고, 두루마리에 갓을 쓴 채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접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피하려고만 하지 않은가.

다행히 몇 해 전부터는 ‘wHOOL’ 뿐 아니라 퓨전 국악을 표방하는 그룹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악의 대중화가 그리 먼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의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본 젊은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wHOOL’의 음악에 매료되고 만다.

“최근 들어 처음 듣는 장르의 음악. 한번 보고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신기하다”(소랭이), “이리저리 꼬이고 답답했던 마음을 훌훌~털어버리고, 가득가득 담아주신 정기를 잘 받고 온 모양이다 공연을 본 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올라블라) 등 홈페이지(www.wool.co.kr)에 올라온 공연 후기만 봐도 그렇다.

‘wHOOL’ 역시 이런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달 블러섬랜드에서 열리는 ‘핑크 블러섬 파티’ 외에 올해는 전국을 도는 태교음악회 등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무대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얼마 전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이들이 연기자로 변신하기도 했다. 일종의 팬 서비스(?)인 셈이다.

올 연말쯤 첫 음반 출시 예정

결성 6년, 하지만 이들에겐 단 1장의 음반도 없다. 음반시장 불황(?), 이 때문이 아니다. 처음 나오는 이들의 결과물하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말을 빌자면, 현재 작업 중이지만 욕심을 부리다보니 자꾸 늦춰진단다. “곡은 완성이 되어 있다. 연말쯤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박동일)이라고 한다. 음반의 색깔은 역시나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의 결합, 그



리고 새로운 음악이다.

뒤풀이 자리에서 ‘wHOOL’ 멤버 제안을 받은 김현수 씨, ‘wHOOL’의 공연을 본 뒤 매료돼 결국 ‘wHOOL’의 멤버가 된 최가람 씨, 공군군악대에 복무하며 국악기를 처음 접한 류하림 씨, 국악에 관심이 없던 박동일 씨가 자부심을 갖고 ‘wHOOL’의 멤버로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새로운 음악’이기 때문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믿는 이들은 국악에 대한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습득하는 일에도 매진할 생각이라고 한다. 드러머가 장고까지 너끈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다. “가람이는 거문고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요.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 바탕 위에 건반을 넣고, 리듬을 넣어서 만드는 노래는 확실히 달라요. 밴드 안에서 국악기가 많고 적응과는 상관이 없죠. 더 많은 사람들을 결합시켜 ‘wHOOL’ 외에 여러 팀을 만들 생각도 있어요. 블러섬이라는 뜻처럼,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최 대표의 말에 곁에 있던 류하림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국악 자체가 너무 새로워요. 생전 접해보지 못한 리듬이 나오고, 국악 쪽에서만 봤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음악과 결합하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조화만 잘 이룬다면 멋진 음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wHOOL’의 음악 기대해 주세요.”

‘wHOOL’은 퍼내지 않아 고인 채 썩어가는 (우물)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술가는 비로소 흘러야 제 맛을 낼 수 있다. 5~10년 뒤에는 이들이 피리, 태평소, 장구, 북, 팽과 리 등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각오를 들어보자. 막내인 박가람 씨는 “롤링스톤즈나 U2처럼 머물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장수하는 팀이 됐으면” 한다. “우리의 공연을 본 뒤 마음을 열고 갔다거나, 우리의 음악을 하늘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wHOOL’과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해요.”(김현수)

박동일 씨 역시 “‘wHOOL’은 언제든 잘될 수밖에 없는 팀”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기를 당연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우리 팀이 했으면 한다”고 한 몫 거든다. “블러섬랜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합니다.”(류하림)

글 김미영 | 한겨레신문 기자